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93.57	↑ 코스닥	889.93
	(+11.76)		(+0.22)
↓ 금리 (미국 9년)	3.251	↑ 환율 (원·달러)	1314.50
	(-0.022)		(+3.50)

“ELS 등 고난도 상품
면밀한 감독 못해
연내 개선안 마련”
03



메트로경제 ‘2024 감사 리더스 써밋’ 시즌1 성료

“한국경제 짓누르는 기업 규제 철폐해야”

초콜릿 주원료 코코아 값 폭등 제과업계 ‘한숨’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강연

금융회사 감사 40여명 한자리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위기 처한韓
지식인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필요
금융리스크 관리 감사역할 절대적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4 감사 리더스 써밋(Leaders Summit)
시즌 1’이 열렸다. 언론사 최초로
개최된 이번 감사 써밋은 금융권에 대
한 ‘위험 관리’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
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3일 서
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
표)과 금융회사 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리더스 써밋을 개최했다.

이순우 메트로신문 언론윤리실천위
원장은 “홍콩 ELS 손실 규모가 6조원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IMF를
겪으며 깨달은 금융 본연의 역할과 감
사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
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홍콩 E
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40만 계좌가까
이 팔린 홍콩 ELS의 예상 투자 손실은
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찬을 겸한 이날 써밋에선 김석동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4 감사 리더스 써밋(Leaders Summit)’ 첫번째 모임이 13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렸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를 주제로 강연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황중섭 전 하나저축은행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이순우 메트로경제 언론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병영 BNK투자증권 고문, 김성현 DBG생명보험 사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전 금융위원장이 ‘미래를 개척하는 한
민족 DNA’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블레스 오블리
주’와 규제 혁파’만이 글로벌 경기침체
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
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은 자산버블, 가계·
기업·정부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
경제양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에 직
면해 있다”고 진단한 후 “40년간 누린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의 시대는 끝났
다.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
대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데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역경을 통해 강해지

는 한민족 DNA를 기반으로 국내 위기
를 돌파해야 한다”며 “60년간 세계 GD
P가 8배 증가한 반면 한국의 GDP는
45배 증가한 것만 봐도 입증된 사실”이
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한민국 지식인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
다”면서 “경제를 짓누르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메트로신문 이장규 대표는 개회사
에서 “경기 불황에는 업의 본질이 무엇
인지 되돌아 보게 되는 만큼, 홍콩 ELS
분쟁 조정을 통해 금융의 본질은 리
스크 관리인 것을 알수 있다”면서 “업의
본질을 지키는 (회사) 감사 역할이 절

대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감사 리더스 써밋은 감사
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가 유지되는
협의체적인 포럼이다. 각 회사 감사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명강의’를 직
접 만나는 시간이다. 또한 세미나, 탐방
등을 통해 선진 감사시스템 등을 고민
할 예정이다. 이날 김석동 전 금융위원
장의 강연에 이어 오는 5월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김대식 교수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尹 “우주개발 예산 1.5조 이상 확대… 5대 강국 도약”

(2027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출범 “2040년 우주경제 3363조 전망 2045년까지 100조 투자 이끌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
억원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해 “오늘 대한민국 5대 우주강국을 이행할 위대한 여정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위성 특화지구)·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남(발사체 특화지구)·대전(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

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자 클러스터의 한 축인 경남 사천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이 KAI를 방문한 것

은 2022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던 모습을 봤던 기억을 언급하며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주 경제를 선도하는 우주 강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성장동력”이라며 “2040년에는 우주 경제의 규모가 2조7000억달러, 약 3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 삼천포 용궁수산물시장서 사천시민들과 인사 /사진 뉴시스
- ▲ 여 “철도 지하화·아빠 출산휴가 한 달” vs 야 “신혼 1억 대출”

- ▲ 여, 17일 첫 중앙선대위원장 회의…고동진, 선대위 부위원장
- ▲ 민주당 부산 여성·청년위, 장예찬 ‘난교’ 발언 규탄



- ▲ 5월31일까지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 “안전관리 최선”
- ▲ 이종섭 호주대사 공식업무 돌입… “국방·방산 협력 위해 역할” /사진 뉴시스